

반도체 · 디스플레이 4000억원 지원

산자부, 중기 시설투자 1500억원 ... 장비 · 재료 기술상용화 2500억원

반도체 · 디스플레이 분야 중소 장비기업들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의 수급펀드가 조성되고 장비 · 재료의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해 2500억원이 투입된다.

산업자원부는 11월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세균 장관과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6개 대기업 대표, 금융기관장 등이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대 · 중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합의된 상생협력 사업은 중소 장비 · 재료 관련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, 장비 · 재료 원천기술 상용화 사업, 신공정 장비 · 재료의 성능평가 및 인증 등 3가지이다.

산자부는 상생협력으로 현재 18%인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율을 2015년까지 50%로 끌어올릴 계획이다.

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삼성전자, LG전자, LG필립스LCD, 삼성SDI, 하이닉스반도체, 동부일렉트로닉스, 기술신용보증기금, 중소기업은행 등이다.

산자부는 협약에 따라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장비 · 재료 산업의 투자 및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, LG전자, 하이닉스 등 3개 대기업이 65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정부예산을 더해 총 1500억원의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.

수급기업펀드는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.

수급기업펀드의 금리는 4.8%로 지원대상도 출연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, 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.

아울러 반도체 ·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이 미래 신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장비 · 재료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해 장비 · 재료 원천기술상용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이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3-5년 이내에 상용화를 이루어 국내 장비 · 재료기업들의 세계 20위권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동부일렉트로닉스 등 반도체 3사는 양산라인을 새로운 국산 장비나 재료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, 성능을 공동으로 평가해 우수한 장비 · 재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인증한 뒤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15>